# 2017년 안방·스크린을 빛낸 스타들

KBS·MBC·SBS 연기대상 유력 후보
남궁민·최민수·지성

2017 지상파 3사 연기대상 영예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많은 후보 가운데 KBS 2TV '김과장' 남궁민, MBC '죽어야 사는 남자' 최민수, SBS '피고인' 지성(왼쪽부터)의 수상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사진제공 | KBS·MBC·SBS

## 연기의 남궁민…캐릭터의 최민수…투혼의 지성

### 지상파 3사 연기대상 주인공은?

KBS '김과장' 남궁민, 능청 연기 일품
MBC '죽사남' 최민수, 캐릭터 그 자체
SBS '피고인' 지성, 감량 투혼 원맨쇼

지상파 3사의 '연기대상'이 다가오면서 영광의 순간을 맞이할 주인공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MBC와 SBS는 30일, KBS는 31일 연기대상 시상식을 개최하며 올 한 해 안방극장에 선보인 드라마를 정리한다. 대상 트로피에 가장 가깝게 다가간 연기자를 스포츠동아가 예측해 본다.

**●남궁민·최민수·지성, 올해를 빛낸 연기자**

KBS의 유력한 대상 후보자는 2TV '김과장'(1～3월)의 남궁민이 첫손에 꼽힌다. 그의 물오른 능청스러운 코믹 연기가 드라마의 흥행을 결정지었다. 7.8%(닐슨코리아)의 시청률로 1회를 시작한 후 3회 만에 두 자릿수를 기록하더니 최고 18.4%까지 찍었다. 순수한 정의(正義)는 아니었지만 직장 내 부조리를 고발하고 바로 잡으려는 그의 캐릭터에 많은 시청자가 공감하고 희망의 기운을 받았다. 올해 초 방송했지만 그의 연기력은 지금까지 회자될 정도로 강한 인상을 남겼다. 동시간대 경쟁작인 이영애 주연의 SBS '사임당, 빛의 일기'도 거뜬히 물리친 공도 무시할 수 없다.

최민수는 후보로 거론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반전이다. 그가 주연한 MBC '죽어야 사는 남자'(7～8월)는 '땜빵'으로 대체 편성돼 제대로 주목받을 기회를 얻지 못했다. 하지만 최민수가 관록으로 모든 것을 뒤엎었다. '최민수의 재발견'이라는 반응이 나올 만큼 머리부터 발끝까지 캐릭터를 자유자재로 표현했다. 말투와 억양, 손동작, 걸음걸이 등 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는 그의 섬세함이 드라마를 성공으로 이끌었다. 덩달아 시청률도 14%까지 상승했다. 시상식에서 또 한번의 반전이 이루어진다면 그는 1995년 SBS '모래시계'로 대상을 받고 22년 만에 가장 높은 위치에 서게 된다.

SBS에서는 지성의 수상 가능성이 가장 높다. '피고인'(1～3월)에서 지성은 기억상실, 살인 누명, 탈옥 등 매회 걷잡을 수 없는 에피소드를 이끌며 매회 몸을 아끼지 않는 열연을 보여줬다. 캐릭터 몰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출연 전 체중을 7kg 감량하고 촬영 중에도 간헐적 금식으로 혹독하게 자신을 몰아쳤다. '원맨쇼'에 가까운 그의 활약으로 '피고인'은 올해 방송한 SBS 드라마 가운데 가장 높은 시청률인 28.3%를 기록했다. 지성은 2015년 MBC에서 '킬미, 힐미'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영철·김상중·이보영, 빅3의 대항마**

남궁민 최민수 지성의 대항마가 있다면 이들이다. KBS 2TV '아버지가 이상해'(3～8월) 김영철, MBC '역적:백성을 훔친 도적'(1～5월) 김상중, SBS '귓속말'(3～5월) 이보영이다.

김영철은 극중 딸을 향한 진한 부성애 연기로 시청자의 눈물을 쏙 빼놓았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가족애를 다시 일깨워줬다. 그의 마지막 대상 수상은 2000년이다. 당시 그는 KBS 1TV '태조 왕건'에서 궁예 역을 맡았다.

김상중의 존재감도 굉장했다. 홍길동의 아버지 아모개 역을 맡아 죽음으로 중간에 퇴장했지만 초반 드라마의 중심을 잡아줬다. 양반 권력에 굴하지 않고 소신을 지키는 노비 캐릭터의 강렬한 카리스마를 보여줬고, 극의 긴장감을 높이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 총 30회 중에 절반도 출연하지 않았지만 그의 활약은 누구보다 컸다.

이보영은 수상 여부를 떠나 홍일점으로서 활약이 돋보였다. 올해는 장르물이 대거 방영되면서 여배우들이 주인공으로 나설 무대가 상대적으로 좁았지만 그 틈새에서 이보영은 제몫을 해냈다. 평소 처연하고 연약한 이미지가 강했던 이보영은 '귓속말'을 통해 액션에도 도전하며 강한 목소리를 내는 등 이미지 변신을 이뤄냈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괄목상대 상
조우진
'강철비'
'1987'

인상 팍! 상
허성태
'범죄도시'
'남한산성'
'꾼'
'부라더'

화면 장악력 상
염혜란
'도깨비'
'슬기로운 감빵생활'

갑툭튀 상
문문
'비행운'
※ 발표 1년 만에 음원차트 1위

## '내부자들' 조우진의 성장…'역대급 인상' 허성태

'신 스틸러' 염혜란, 안방극장 종횡무진
인디가수 문문, 역주행송 '비행운' 신화

### '내 멋대로 시상식' 수상자 소개

화려한 시상식 무대에서 트로피를 거머쥐는 배우와 가수만 스타는 아니다. 적재적소에서 그 몫을 해내며 대중을 울고 웃기는 스타도 여럿. 올해도 그들의 활약은 계속됐다. 스포츠동아 엔터테인먼트부 기자들이 엄선한 '내 멋대로 시상식'의 주인공을 소개한다.

**●'괄목상대(刮目相對)상'=조우진**

지난해 영화 '내부자들'의 '잘 빠진' 조폭으로 등장하면서 '누구지?' 궁금증을 우발했던 그다. 어느새 어엿한 조연급 연기가자 되어 드라마 '도깨비', '시카고 타자기', 영화 '더 킹', '보안관' 등 웬만한 흥행작에 등장하는 조연급 연기자가 됐다. 1999년 연극 무대를 통해 데뷔한 뒤 탄탄하게 쌓은 기본기의 긴 세월이 그의 든든한 디딤돌이 됐다. 최근 흥행작 '강철비'에서는 아예 현란한 액션연기까지 선보이고, '1987'에서는 더 없는 비극의 한 증언자가 되어 관객의 심금을 울렸으니, 더할 나위 없는 존재감으로 스크린의 또 다른 주역이 될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인상 팍! 상'=허성태**

그가 인상을 '팍' 쓰면, 그 영화는 어김없이 흥행했다. 강렬한 인상에선 따라올 연기자가 없는 1인자. 올해 '범죄도시', '남한산성', '꾼'에 이어 심지어 '부라더'까지, 출연영화 전부를 흥행으로 이끈 실력자다. 미간을 찌푸리며 인상 '팍' 쓰고,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를 펼치면 관객은 그대로 빠져든다. 지난해 영화 '밀정'에서 송강호로부터 거센 따귀를 얻어맞고 '인상 팍' 쓰는 그 장면으로 단숨에 주목받더니, 불과 1년 만에 쾌속 성장. 오래 다니던 대기업 관두고 뒤늦게 배우가 돼, 불혹을 앞두고 빛을 보기 시작한 남다른 스토리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내년 활약도 기대하면서, '인상 팍! 상'을 넘어 '인상 좋아 상'까지 받길!

**●'화면 장악력 상'=염혜란**

잠깐 봐도 기억에 남는 연기를 펼쳤다. 올해 1월 tvN 드라마 '도깨비'에서 모두의 분노를 샀다. 동화 '신데렐라' 속 계모보다 더 못되게 조카를 괴롭혔다. 욕과 비속어를 남발하지만 자연스럽고 또 친근하게 캐릭터를 소화하는 능력은 오랜 경험의 힘이다. 2000년 연극 '최선생'으로 데뷔한 그는 지금도 꾸준히 무대에 서고 있다. 현재 방송중인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에서도 그 재능은 빛났다. 마약복용 혐의로 수감중인 아들에게 "그런 쓰레기 같은 새끼"라는 말을 남기고 퇴장했다. 드라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에서는 아픈 시누이를 극진히 보살펴 감동을 안겼다. 내년에는 어떤 작품의 화면을 장악할까.

**●'갑툭튀 상'=문문**

이름? 얼굴? 솔직히 잘 모른다. 이를 아는 사람들이 더 신기할 정도다. 인디가수 문문(김영신)은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왔다. 문문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비행운'이라는 곡으로 1년 만에 음원차트 1위에 오르는 '파란'을 일으켰다. '역주행'도 이정도면 대형 사고다. 앞서 윤종신이 '좋니'로 데뷔 27년 만에 처음 1위에 오른 것과 맞먹는 신선한 충격이다. 지난해 7월 데뷔 한 문문은 소리 소문 없이 묻히는가 싶더니 제대로 '한방'을 날리게 됐다. '매일 매일이 잿빛이던'(비행운 가사 일부)그의 인생도 이제 환한 빛이 들어오게 됐다.

엔터테인먼트부